Entertainment p/18
영화 '차이나타운' 제작발표
metro
Sports p/21
박태환 '리우' 갈 수 있다
복고양이 된 미운오리
업황부진 두산인프라코어 '밥캣' 홀로 효자 노릇
인수 당시엔 부실 기업… 박용만회장 결단력 돋보여
Bobcat
“직원 행복이 회사 행복”
태진아 “억울해 죽겠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통과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권익위, 5월 첫 공청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과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정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이후 자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까지 시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관련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령 제정 등 보완작업을 준비해왔다"며 "기술적으로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만 각종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에 이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포 이후에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윤아기자 yoona@

돈 때문에 남편·시모 살해한 베트남 신부

metro HongKong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23일(현지시간) 메트로 홍콩은 중국으로 시집 온 한 베트남 신부가 남편과 시모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3월 베이징(北京)에 사는 라이씨는 예물로 2만8000 위안(약 504만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 아우를 신부로 맞이했다. 쌍둥이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않았다. 아우는 두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지난 2일 새벽 베트남 남성 세 명과 모의해 남편과 시모를 살해하고 도망갔다. 경찰에게 제보된 이유는 "자녀 등을 팔아 담 6만 5000위안(약 1170만원)에 넘겨 주십시오 계획이었다"고 밝혀 중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라오핑현 공무원은 "이 지역에서 베트남 신부와 관련한 가정폭력과 치안불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베트남으로 다시 도망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리=김서기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역과 금기 허용 않겠다"

문고리 3인방 관련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 되는지 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어지는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보직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현역에 타협할 건 다임 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찰)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제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의혹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이 물러선 결과다. 대법관 공백 상태는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달 이상 지속 중인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문회를 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당 일각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다. 청문회를 열면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우사통과로 이어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지도부 일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일방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bhsong@

최전선서 흔들리는 '부패와의 전쟁'

檢 '수사정보 유출' 정황… 이완구 슈 안서
감사원·국세청, 성매매에 뇌물수수까지

정부가 벌이는 '부패와의 전쟁'이 최전선에서 흔들리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내부의 기강해이가 원인이다. 그것도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기관의 문제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핵심 사정기관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잇따르고 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영이 안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정의지마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 검찰 첩보 유출 정황… 포스코 장학생 의혹

이 총리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대한 부패행위를 열거하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엮어 있다. 사정기관의 기강해이에 대한 경고라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이 총리를 물먹이는 일이 검찰에서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선 포스코 수사에서다. 포스코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검찰의 타깃 1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포스코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부를 정리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현재 포스코 비상임고문으로 있으나 정 전 회장의 사무실은 비밀리에 소재림 사용된다는 말이 있다. 포스코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다급히 찾아온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직전 포스코 정보가 샜는지 포스코 측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유출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른바 '포스코 장학생'이 검찰 내부에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감사원·국세청, 성매매에 요정출입까지

지난 20일 정부는 각 사정기관 자관이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부패와의 전쟁에 사정기관 총동원령을 내렸다. 검찰 수사에 이은 전면전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를 전후해 사정기관의 핵심인 감사원과 국세청에서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는 직원들이 속출했다.

적발된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라고 지난해 만들어진 감찰과 소속이었다. 게다가 이들 감찰과 직원들은 1인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한 요정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정에서의 접대문화는 60~70년대 횡행했던 역사의 유물이다. 대표적인 부패문화의 상징이다.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은 명문대 출신에 행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소속 직원들이 억대의 돈을 받아 수천만원씩 나눠가진 사건이었다.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다.

부패와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들 사정기관이 뿌리까지 썩어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일 감사원은 비리직원에 대해 자격심사 후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해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혁신 노력을 여전히 미심쩍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 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무성 '北 핵보유국' 주장… 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실제적 핵능력을 인정하는 미국도 핵보유국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은 그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정국은 사드 문제 이상의 파란이 일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 계명대학교 미디어홈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제가 문제 발언인데…"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외교안보적 파장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는 토크쇼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핵폭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있나.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 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중국 상하이 방문 당시에도 민감한 개헌 문제를 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정국을 격랑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이정경기자 [illegible]

한국해양대서 토크콘서트 중인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천안함 5주기' 南北 설전만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이틀 앞두고 남북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식의 설전을 되풀이했다. 5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얼빠진 주장"이라며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5.24 조치는 마땅히 지체없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며 "이 부분은 북한이 폭침시킨 소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하루 앞둔 24일 「…」 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정혜인기자 [illegible]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 입증 임시거주 확인서 인터넷 제공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체류지 입증 절차가 간편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는 외국인력상담센터(www.hugkorea.or.kr)가 제공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통해 체류지 입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신청 때 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 때 필요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센터가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때 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내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때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허위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단체 등에서 이런 사정을 호소해 확인서 제공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월호'를 보면 E-9 근로자는 1만66명, H-2 근로자는 1만6218명에 달한다. H-2 근로자는 중국 동포가, E-9 근로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Providing Foreign Laborers' Residence Confirmation Document

Non specialist employment (E-9) foreign laborers confirmation of residency substantiation has been simplifi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as stated that foreign laborers can substantiate their residency through residence accommodations confirmation document provided by Foreign Human Resource Counsel Center (www.hugkorea.or.kr).

Department of Justice has enforced the process of confirming foreign laborers stay on October 10th 2013, and has obligated them to submit accomodation fee receipt, utility bills receipt, housing contract, accomodation confirmation document as they extend their stay or change their living area. But there i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go to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their provinces for accomodation confirmation document. For the center provides the accomodation confirmation document, foreign laborers can download the form from the homepage when they want to change their workplace. The center has stated that any foreign laborers who do not submit the accomodation confirmation document may not be able to extend their stay and if they fill out any confirmation forms falsely, they can be charged with fine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policy. For these reasons, the center has decided to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needed.

According to Immigration, Foreigner policy of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Reserve Bulletin in January. There were 10,066 E-9 employees and 16,218 H-2 employees. Most of H-2 employees were Chinese Koreans. E-9 employees were South east asians from the third world.

/JCG[illegible] Daria Kim [illegible]

MS가 포르노 도메인 산 이유?

이미지 훼손 막기위해 선점경쟁

테일러 스위프트 /리처드 [illegible] 제공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포르노와 성인이 들어간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산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3일(현지시간) 외신은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가 지명·사건·관심사 등을 이용한 도메인 1300여개를 6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com, .org 등으로 제한된 인터넷 주소 사용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독창성 추구를 돕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은 이번 조치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악의적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해 자신의 이미지가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유명인과 단체들은 도메인 주소 선점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MS와 테일러 스위프트는 각각 Office.adult, Office.porn과 TaylorSwift.porn, TaylorSwift.adult 등을 사들였다. 미국 하버드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테일러는 도메인 당 2500달러(약 280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메인 주소를 사들이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다.

한편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일부 도메인 주소를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 재판매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고(高) 위험 전략으로 재판매에 실패했을 경우 이를 시도한 회사들이 빚더미에 나앉게 될 가능성이 짙다고 외신은 경고했다.

/김서이 기자 nelsun2170

독일 드레스덴 시민공원 '한국광장' 명명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시에 조성된 시민공원이 '한국광장(Koreanischer Platz)'으로 이름붙여졌다. 김재신 주독 한국대사가 23일 오전(현지시간) 드레스덴 현지에서 열린 명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꼬마 발명가 만나는 오바마 대통령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클라호마 털사 출신 걸스카우트 단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5 백악관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해 뭐이 미끄러졌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레고로 책장을 넘겨주는 장치를 고안해 눈길을 끌었다. /AP 연합뉴스

'나 홀로 성장' 美 경제 너마저…

WP "달러 강세 끝났다"
IT·부동산 버블 재현 경고도

'나 홀로 성장'으로 차별화를 보였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달러 강세가 끝났다는 주장과 함께 자산 버블(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공포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자 사설을 통해 '달러 강세가 끝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유럽행 항공권을 끊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까지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주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2011년 10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폭인 2.2%나 하락했다. 23일에도 0.7% 떨어져 11개월 만에 [illegible] 42를 기록했다.

반면 금값은 이날 나흘째 상승해 2주 사이 최대치를 보였다. 런던시장의 구리값도 지난 1월 9일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도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스페셜리스트가 단말기를 통해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씨티의 뉴욕 소재 아메리카 G10 환 전략 책임자 리처드 코치노스는 "선물시장에 대규모 롱(매입) 포지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고 판단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며 "유럽행 항공권을 지금 끊어야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제로금리 계속되면 자산 버블 터져"

1990년대 기술주 버블, 2000년대 주택 버블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자산 버블이 터져 파괴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연준이 나중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 시장에 심각한 변동성을 주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5.5%를 기록한 실업률이 3분기 말에는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환경에서 제로 금리는 자산 버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국현기자 kmine@metroseoul.co.kr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3조원 돌파

영업점별 온도차… 대상여부 미리 확인을

"빨리 마감된다고 해서 점심도 안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놀랐어요."

오전 11시 45분 서울 파이낸스센터 1층의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러 왔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기 완판' 우려에 미리 준비를 했지만 의외로 한산한 대출 창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은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문의전화는 폭주했지만 실제 출시 첫날 은행에 방문한 사람은 오전까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방 고객 수는 영업점마다 다를 것"이라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나 일부 영업점은 영업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창구를 더 늘리는 등 대비책을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10여명의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이 몰렸다. 같은 시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도 10여명의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

◆ 출시 첫날 3조원 돌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SC·농협·부산은행 등 16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일제히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 3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은행권 창구 마감을 집계한 결과 안심전환대출 승인건이 2만6877건, 승인액은 3조303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 대출만 생각하고 왔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다시 발길을 돌리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등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도 있었다.

또 주택가와 회사 밀집 지역 등 영업점마다 고객 내방수가 현재히 차이 나며 온도차를 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연에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대출 가능여부 등 확인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을 20조원,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로 책정했다. 또 대출 대상자를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는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여섯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와 합동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전환대출 신청과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활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는 등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정책국장 주도하에 비상대응팀을 편성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연합회는 안심전환대출 실적과 고객 문의, 불편 사항을 집계해 실시간 대응키로 했다.

/박상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임종룡 "핀테크 적극 육성… 국제경쟁력 퀀텀점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창업지원공간인 '마루 180'을 방문해 "전세계적인 핀테크 기조가 국내 금융환경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세계에 걸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08년 9억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더 간편하고, 낮은 가격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핀테크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를 금융이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송금·결제분야에 IT업체들이 빅 플레이어로 새롭게 등장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다만 "세계적 ICT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지금이야 말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올해 핵심개혁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며 "서로간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와 기술을 나누고 지향가치를 공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며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역시 지원된다.

임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의 현행 금융규제를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이라는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환경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현장을 통해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비플 김재윤대표와 휴처플레이 류중희대표, 동부증권 이광열부사장, 대신증권 구희진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정승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백아란기자

내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아파트 매매가 석달간 10% 뛰면 적용 검토

다음 달부터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으며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뒤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노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 아00176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 벌써 세계 10위

100층 달성 기념 행사 '안전 기원식'도 진행
연내 외부 마무리…완공시 123층 '세계4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4년 5개월 만에 413.65m를 넘어서며 100층을 돌파했다.

롯데물산과 롯데건설은 24일 제2롯데월드 타워동(이하 롯데월드타워) 100층 달성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100층을 완공하는 콘크리트 타설식과 123층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안전 기원식'도 함께 진행됐다.

2010년 11월 공사에 들어간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으로 건설되는 빌딩이다. 지난해 4월 국내 최고 높이 305m를 넘어선 지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세웠다.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층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완공된 빌딩들과 비교했을 때 10위에 해당한다. 예정대로 2016년 말 완공되면 층수로 전 세계 4위, 높이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초고층 건물이 된다.

◆ 초고층 건물, 관광 수익원

롯데 측은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2014년 개장한 롯데월드몰과 함께 15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추가로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연간 3000억원의 외국인 관광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은 주요 관광수익원으로 입증됐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2010년 오픈 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대만은 타이베이 101이 완공되고 4년 만인 2008년 오픈 당시보다 71%나 늘어난 38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1998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역시 개장 4년 뒤 외국인 관광객이 139%나 늘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191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관광대국으로 성장했다.

◆ 원스톱 생활 가능한 미래도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은 단순히 상징성을 띄다 도시 속 도시라 불리는 '입체도시'가 형성된다. 학계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설계에서부터 단독건물이 아닌 건물 집단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 '입체도시' 또는 '수직도시'라고 부른다.

사무공간과 거주공간, 호텔, 전망대, 미술관 등이 한 곳에 집중돼 하나의 도시처럼 빌딩을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기존 도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닌 새로운 범주의 빌딩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가져오는 '입체도시' 효과가 건축도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성우 한양대 교수는 "20층 건물 3동을 지을 땅에 60층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같지만 나머지 2동 자리 땅을 공원, 도로확장 등에 이용해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있다"며 "제2롯데월드가 미래 우리나라에 100층 이상 입체도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건설기술 역량 업그레이드

롯데월드타워 100층 돌파까지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양은 19만 5000㎥에 달하며, 사용된 철골과 철근도 4만여 톤을 넘는다. 외관을 감싸고 있는 커튼월(Curtain Wall)은 1만2800개가 시공됐고, 공사인원은 77만6000명에 이른다.

또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들어간 주요기술만 해도 하중, 풍속, 지진, 콘크리트와 관련해 20개가 넘는다. 구조와 설계는 물론 테스트까지도 새로운 기법이 사용됐다. 이러한 대형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역시 국내에서 조달돼 침체된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에 555m 높이에 달하는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1년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를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해 초고층 건설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한치 오차 없는 안전한 시공으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이견 충돌' 조합-건설사, 교체 잇달아

올 초부터 시공사와 조합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업체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새로운 건설사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공사비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 GS건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이었던 대우건설은 공사비를 가장 적게 낸 곳이 GS건설인 것으로 알려지자 급격히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귀띔했다.

고덕주공6단지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0년 174% 우상지분율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운 두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익악화를 우려한 건설사가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조합측에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조합은 지난해 8월 열린 총회에서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우상지분율은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터무니 없이 높은 수치였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신중했어야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SK건설이 새로 시공권을 따냈다. 지난 21일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 및 정기총회 자리에서 이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해지를 결의하고 SK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 2008년 11월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결정된 대우건설은 사업성을 두고 그간 조합과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었다.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회사를 찾고 싶었다"며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이니 앞으로 우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시공사인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보문2구역 재개발은 이미 조합원 분양이 끝난 상태고 4월 중 감정평가에 들어 간다.

/김희일기자 kimc0604@

삼성물산 창립 77주년 맞아 나눔활동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23일 창립 77주년 기념 '희망 티셔츠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만든 티셔츠를 들고 환히 웃고 있다. 티셔츠는 현재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해외 저개발국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기증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제공

서울 아파트 30% 이상이 월세, 사상 최고

저금리에 따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가운데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3372건으로 이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31.9%(4269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전·월세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의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36.4%(국토교통부 자료)로 이미 30%를 넘어섰지만 가격대가 높은 서울에서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3년 1월 20%를 돌파한 뒤 줄곧 20%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0% 선으로 올라섰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급증한 데는 강남권 재건축 이주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고 물건도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월세 소진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심권으로 파악됐다. 종로구가 43.4%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42.9%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월세를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몰린 게 원인이다.

다음으로 관악구(39.5%), 강남구(38.0%), 서초구(36.6%), 구로구(36.1%), 동작구(33.8%), 성동구(33.5%), 마포구(33.4%), 송파구(32.8%), 성북구(32.6%), 중랑구(32.0%) 순으로 월세 비중이 높았다.

/박선옥기자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웃음 넘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에
애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누고 손잡아주고 배려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애경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ELS·RP 인기몰이

고금리 혜택 제공에 안정성까지 갖춰

초저금리시대 은행 예금상품보다 높은 기대수익률과 안정성까지 갖춘 증권사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증권사 상품으로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꼽을 수 있다.

ELS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가가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손실률을 더욱 최소화하거나 기초자산을 다양화한 ELS가 잇따라 출시됐다.

대신증권은 최근 시가총액 100조원 이상의 초우량 글로벌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 '100조클럽 ELS'를 선보였다.

'100조클럽 ELS'는 초우량 글로벌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ELS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초우량 글로벌 기업 투자를 통해 국내외 지수형ELS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수익성도 뛰어나 시중에 나온 국내외 지수형 ELS 상품의 수익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 지수형 ELS 수준의 안정성에 지수형ELS 수익률 +α를 추구한다. 기초자산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리서치센터의 분석을 통해 기초자산과 구조를 회사 결정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총 100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은 소비재, 금융,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3M, 구글, 월마트, 삼성전자, 길리아드 사이언스 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묻어두던 자산을 ELS에 투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량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까지 갖춘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도 인기상품 중 하나다.

RP란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한다. 일반 RP 수익률은 연 2% 수준이지만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특판 RP는 최대 연 4%까지 올라간다.

대우증권이 최근 내놓은 3개월 만기 특판 RP는 100억원이 모두 판매됐다. NH투자증권의 3개월 만기 연 4.0% 특판 RP에도 60억원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통합해 출범한 기념으로 첫 거래 고객에게 제공한다.

/서민지기자 minc@

손보 '빅3' 대륙서 붙는다

삼성·동부·현대, 中·베트남 진출 잇따라

저금리·저성장 지속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해보험사 '빅3'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베트남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3일 중국 서서성 서안시에 섬서지점을 개설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월 9일 중국 진출 외자계 손해보험사로는 최초로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서서(섬서)지역 섬서성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섬서지점은 북경·심천·소주·청도·천진지점에 이은 삼성화재 중국법인의 여섯번째 영업지점이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지점수다.

삼성화재는 또 중국 손보업계 1위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PICC)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교육·연구 목적의 인력 교류와 글로벌 보험교환 거래 등에서 업무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로 삼성화재는 현지 매출이 지난 2006년 155억원에서 지난해 1484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삼성화재는 베트남에서도 국영 재보험사 '비나 리'와 합작한 독립법인 삼성비나를 운영 중이다. 이 법인은 현지에서 3.7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외자계 21개 보험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도 5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3년 중국 우량 회사인 안청손해보험사 지분 15.01%를 인수,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안청손보를 공동경영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난 1월 말에는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했다. 이 업계는 2013년 기준 베트남 시장점유율 7.2%로 29개 손보사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영업과 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량 손보사로, 자동차보험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고객 DB 활용 가능성을 보유한 손보사로서 향후 추가 성장 여력이 높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9월 현대해상은 중국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상품 판매 최종 인가를 받고 중국 자동차책임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현대해상은 앞서 자동차 임의보험과 국내 진출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일반보험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장악력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대형 손보사 위주로 해외에서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최근 지속되고 있다"며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현지 당국의 규제가 심하지만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손보시장은 2020년 260조원대로 성장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시장도 연간보험료 규모는 현재 1조50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평균 16% 이상 성장했고 당분간 두자릿수 이상 성장세가 기대된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이벤트

NH투자증권이 '100세시대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기존 가입 고객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IRP Double Up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계좌로 구성돼 있다. 또 '100세시대 IRP'는 투자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오는 30일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NH투자증권이 추천하는 운용사의 펀드에 적립식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벤트 기간 중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거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명에게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에 3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함종욱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자산을 보다 경쟁력 있는 노후자산으로 키우고 푸짐한 사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주주 지분 많을수록 사외이사 오래 재직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3일 주요 상장사 400개의 주주총회에 올라온 주요 의안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주총회를 개의한 기업 1728개사 중 주주제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25개로 전체의 1.4%였고, 그 중 원안대로 승인된 경우는 1건(2015년 3월 20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배당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34.2%가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폭인 5.9%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주주환원 의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김호준 지배구조연구실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을 갖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부동의 1위' 삼성전자, TV사업 '적신호'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 내리막길
2006년 이후 첫 적자 전환 예상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이 이끄는 TV사업에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적신호 가 켜졌다.

삼성전자 TV사업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TV사업은 2006년부터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TV시장의 성장이 정체상태에 빠지면서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TV 시장은 올해부터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예상 TV 판매 규모는 2억 3900만대로 성장률은 4.37%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성장률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09%, 2017년 1.23%으로 성장폭이 줄어들면서 각각 2억4400만대, 2억4700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TV사업 수익성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비수기의 영향으로 글로벌 LCD TV 출하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환율 사정이 겹쳐 국내 TV 세트 업계들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부근

이어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TV 부문은 1분기에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6와 S6 엣지 출시가 1주일 가량 앞당겨지면서 삼성전자의 IM 사업부문은 전분기 2조원 대비 개선된 2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TV 부문은 계절적 비수기도 있지만 1000억원 가량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VD 사업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삼성그룹이 실시하는 경영진단은 적자를 내거나 부진 감지 등의 경우 행해진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점유율(29.2%)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TV 사업은 매출과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이지만 영업이익면에서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 사장이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올해에는 SUHD TV로 프리미엄 제품 입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채성오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노조, 27일 주총 앞두고 투쟁 태세

현대BS&C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지적 　희망퇴직 구조조정 논란 정치권으로 번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진과의 투쟁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BS&C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의 조카인 정대선 사장이 100% 지분을 가진 사기업이다.

시스템통합(SI)과 정보통신기술(IT) 아웃소싱 등 현대중공업그룹 중심의 네트워크시스템 관리와 보안 업무를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글로벌 통합구매, 식수관리, 품질경영, 고객센터 시스템을 맡았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ERP 시스템, 힘스 생산관리시스템, 현대종합상사 통합정보시스템, 현대오일뱅크 무선보안망 구축, 서울 아산병원 전자구매시스템 등을 담당했다.

노조 측은 "2012년 현대BS&C 매출의 46% 정도가 현대중공업그룹과의 거래에서 생겼다"며 "힘스(HYMS), 현대E&T, 현대BS&C 등의 계열사가 그룹 조선3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 노조는 27일 주총에 집단 참여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이 진행한 희망퇴직에도 노조는 부당한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날 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희망퇴직과 최근의 여직원 대상 CAD교육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과장급 이상 1500여명에 이어 이달 고졸·전문대 출신 여직원 6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사측이 안사치님을 통해 여사원 희망퇴직 종료를 알렸지만, 노조는 여직원 CAD교육에 대해 간접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CAD교육이 구조조정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은 사측은 울산 동구 새누리당에 면담을 요청해 조만간 구조조정 논란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조선 3사 경영지원분야 재경, 회계, IT 등 유사업무 통합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룹 기획실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통합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통합으로 계열사별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roman@

LG '코드제로 싸이킹' 거리 청소 이벤트

LG전자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및 인근 지역에서 프리미엄 무선 진공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으로 실내와 거리를 청소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무선 청소기의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청소기의 코드를 자르는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어 '코드제로 싸이킹'으로 타임스퀘어 로비와 인근 거리를 청소하는 이색 이벤트를 선보였다.

'코드제로 싸이킹'은 사용자가 청소기를 끌지 않아도 본체가 스스로 따라오는 오토무빙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들의 허리와 손목에 가는 부담을 덜어준다.

이 청소기에 탑재된 스마트 인버터 모터는 일반 진공청소기의 모터보다 수명이 3배 이상 길다. 배터리의 경우 500회 충방전을 하더라도 초기 대비 8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한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윤성호기자

삼성전자 MS와 모바일 서비스 제공 협력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와 MS는 앞으로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M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본 탑재할 계약이라고 24일 밝혔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주요 스마트 기기에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 서비스인 원노트(OneNote),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원드라이브(OneDrive), 인터넷 음성 영상 통화 서비스 스카이프(Skype)가 탑재된다. 태블릿에는 MS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오피스 프로그램도 탑재된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사용자들에게 2년간 원드라이브 기본 용량(15GB)에 추가로 100GB 용량이 제공돼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연결되면 115GB의 가상공간에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의 B2B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와 결합된 오피스 365의 세 가지 버전(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상철 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일반 사용자나 비즈니스 고객 모두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모바일 기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만나 사용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ysw@

효성 건설부문, 2015년 협력사와 상생 방안논의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효성의 건설부문 3개사는 60여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15년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효성 건설PU, 효성엔지니어링PU로 구성된 효성 건설PG(Performance Group)와 진흥기업㈜ 등 효성 건설 부문 3사는 한강 세빛섬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동반성장, 공정거래, 기술협력, 교육협력 등 협력사와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삼표기초소재, 아주산업㈜, 삼광전자㈜, ㈜지에스티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4개 협력업체와는 기술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성은 이들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차천수 효성건설PG사장은 "효성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으로 시너지를 높여 효성의 건설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기술회사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라기자 Sbssoral@

기술력은 충분한데… LG, 전기차 진출 '속앓이'

협력사 텃밭까 성장동력 잡을까 '눈치'

LG그룹이 스마트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기술력은 갖추고도 진출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완성차업계와의 납품 관계 등을 고려해 진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애플 등이 이미 TF팀을 꾸리고 진출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마냥 강건너 불구경 하 듯 지켜보면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경영진에는 양날의 칼로 다가온다. 완성차업계가 납품선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 고민거리다.

이미 그룹차원에서 스마트카 관련 사업다잡성 평가까지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완성차업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어서다. 완성차 사업 진출을 선언할 경우 기존 완성차 업계들의 견제는 물론 부품제공 루트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한 관계자는 24일 "만약 우리 완성차를 만든다고 해도 부품 납품계약을 맺은 기존 완성차업계와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영업망이나 제널 구축 등 스마트카 사업 진출을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높다"고 말했다. LG가 스마트카 관련 완성차 사업 진출에 나선다면 기존의 협력업체인 완성차업계와 맺은 계약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룹내 핵심계열사인 LG전자는 독일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과 사실상 전장부품 독점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달 초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폭스바겐 산하 디자인하우스 이탈디자인 주지아로의 자율주행 럭셔리 콘셉트카 '제아(Gea)'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LG워치 어베인

LG전자가 협력하는 폭스바겐 콘셉트카 제아 전경 /연합뉴스

LTE 연동 시스템 등 LG전자의 전장 부품 7종이 들어갔다.

제아의 전장 부품은 폭스바겐 그룹 자체 조달(인하우스) 외에는 LG전자가 독점 공급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무인주행차에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LG가 스마트카 사업에 진출한다면 기존 완성차업계의 반발과 강한 견제가 나올 수 있는 점을 그룹에선 걱정하고 있다. LG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언론에서 완성차 진출 소식이 들리면 당장 완성차업계에서 문의전화가 온다"며 "부품사들은 부품제작을 못하고 완성차업계에 해명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LG의 스마트카 사업 진출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전제하면서도 미래먹거리인 스마트카 분야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완성차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LG가)단순히 전기차 부품이나 모듈 공급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성차 공급을 통해 지배권을 자동차 분야로 키울 것인가는 아마도 수년 이내에 나타날 것"이라며 "한 걸음 앞서서 미래먹거리인 전기차 분야의 시장지배력 확보에 성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노키아와 소니 등 글로벌기업들이 사업의 변화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하면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모토로라는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이자 스마트폰 강자로 부상 중인 레노버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한쪽 귀퉁이에 전시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조언했다.

/송정훈기자 gh@metroseoul.co.kr

'서울에어' 자본금 150억 이사회 결의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제2의 저비용항공 자회사인 '서울에어'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24일 공시했다.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인상호 서울에어 △자본금 규모 150억원 이상 △법인 설립 최초 출자금 5억원 등이다.

아시아나는 향후 추가사항 확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달 초 서울에어 설립을 위해 자사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조기 회사설립, 사업면허와 운항증명 취득, 조직 시스템 구축 등 회사의 기틀을 세우고 아시아나에 복귀하게 된다.

이후 서울에어는 자체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측은 안전 기반의 저가항공사 서울에어 설립으로 아시아나와 에어부산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손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항공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단거리 노선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아시아나는 전했다.

/이정필기자 rrr@metroseoul.co.kr

이우현 OCI 사장 전북대 강연

이우현(사진) OCI사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핵심기술로의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사장은 24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공과대학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재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키우는 데 젊은 세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사장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전 세계 전력사용량은 1970년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석탄을 사용한 전력생산은 거의 4배에 이른다"며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 세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 태양에서 단 1시간 동안 지구로 보내주는 에너지 총량과 같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력원으로써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천연가스에 이어 세 번째지만 2012년 천연가스를 제치고 두 번째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며 "현재 석탄과 신재생에너지의 격차가 약 2배 정도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성장하여 2035년에는 석탄을 추월하고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현대차,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차량' 지원

에쿠스·제네시스 등 79대

현대자동차가 '2015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에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봉주 현대차 이사와 조창상 연차총회 기획단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현대차가 이번 연차총회에 지원하는 차량은 에쿠스, 제네시스, 그랜저, 스타렉스, 아반떼 등 5개 차종 79대다. 각국 재무장관과 기획개발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의전과 수행에 활용된다. 현대차는 이번 2015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에 자사의 프리미엄급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각국 정부·재계 관계자들에게 현대차의 기술력과 차량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15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에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제공

연차총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4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기획개발장관, 중앙은행 총재와 국내외 기업인·금융인·언론인 등 3000명이 참석해 2014년도 업무 실적과 지난도 업무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봉주 현대차 이사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 현산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차량을 제공했으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4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소리기자 hsound@

쌍용차, 신임 대표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

쌍용자동차는 24일 평택공장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최종식(사진) 영업부문 부사장을 선임했다.

쌍용차는 2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최 부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

사측에 따르면 신임 최 사장은 1973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자동차 기획실장과 미주법인 법인장(부사장)을 역임하고 중국 화태자동차 부총재 겸 판매회사 총경리(사장) 등을 거쳐 2010년 1월 쌍용자에 합류해 영업부문장(부사장)을 맡아왔다.

40년 경력의 자동차 전문가이자 해외시장에 능통한 글로벌 영업통으로서 영업과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쌍용차의 성장과 미래 비전 실현을 견인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최 사장은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성 개선모델뿐만 아니라 '코란도 C', '티볼리' 등 신제품을 론칭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5년 연속 내수판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판매회복을 통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정필기자 rrr@

계륵서 두산인프라 먹여 살린 '밥캣' 신의한수

박용만 선견지명 명중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선견지명(先見之明)과 뚝심이 10년 만에 빛을 본다. 그가 선택한 '밥캣(Bobcat)' 덕분이다. 최근 몇년간 경영실적이 좋지 않던 두산인프라코어의 부진을 밥캣이 덮어내고 있다. 재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밥캣이 그가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신의한수'였기 때문이다.

'인수 합병(M&A)의 귀재'라 불리는 박 회장이 2007년 인수한 '밥캣'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박 회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작년 말 기준 자본금은 3조2883억원에 부채는 8조6691억원이다. 부채비율이 263.6%에 달한다. 전년(223.5%)에 비해 15.7%포인트 늘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은 수치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침체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악재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밥캣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작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밥캣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6%, 71.1%에 달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밥캣의 기업공개(IPO)에 앞서 약 68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전망이다. 상장 이후 자입금 상환이 어려지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2007년 49억 달러에 밥캣을 인수했다. 당시로서는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케이스 중 최대 규모였다. 미국 대기업을 인수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했다. 모두가 중국 등 신흥국에 집중하는데 왜 하필 북미 선진국에 눈을 돌리냐는 일부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뚝심을 발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시 자익매수(LBO) 방식으로 39억 달러를 외부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밥캣은 2008년과 2009년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조 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두산 그룹 전체에 재무상황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밥캣은 2010년 3분기 흑자전환하며 두산의 캐시카우로 떠올랐다. 특히 2013년 4분기에 5.1%였던 밥캣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1분기엔 11%로 올라서는 등 확준 성장세를 보였다.

현지 시장의 건설경기 회복이 밥캣의 판매 이익으로 이어졌다. 미국 내에서 밥캣은 소형 중장비를 부르는 고유명사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밥캣의 제품들은 전체 소형 장비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46% 이상을 차지한다. 북미 지역 600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900개 이상의 거대한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2015년에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을 밥캣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석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내년 영업이익 5701억원 중 밥캣이 차지하는 액수는 35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내 렌탈, 농업, 교체수요 등 건설장비 신규수요 증가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밥캣 덕분에 엔진사업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산업용 소형 디젤엔진 G2를 밥캣에 공급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밥캣에 쓰인 일본산 엔진을 2013년 자사가 개발한 G2엔진으로 대체하면서 엔진사업의 수익성 역시 상승 중이다"고 밝혔다. 밥캣의 G2엔진 탑재율은 2013년 1%에서 지난해 50%대까지 상승했다. 이 비율은 향후 70~8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엔진분야의 영업이익은 올해 780억원, 내년 1600억원으로 기대된다.

/채소라기자 ksound@metroseoul.co.kr

대우조선해양, 창원에 LNG 추진선박 특허기술 전수

대우조선해양(대표 고재호)은 24일 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LFS, LNG Fuelled Ship) 관련 특허기술 공개·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대우조선해양이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요청을 수락, 지난 1월 창원시를 방문해 LFS 관련 특허 기술의 공개와 이전을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우조선해양은 창원 소재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LNG 연료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이전해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LNG 탱크(독립형 LNG Tank, 압력용기형 LNG Tank)의 제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양측은 미래 기자재 공동 개발(LNG Bunkering)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인 LFS 기술은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의 미래'로 불리는 천연가스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높아 선박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기존 석유계 선박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황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20% 이상 적어 그린쉽(Greenship)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과 창원시는 4~5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기업들이 특허 기술 이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24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LFS 특허기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대우조선해양 엄항섭 전무(오른쪽)와 창원시 박재현 제1부시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우조선 제공

현대중공업 '몸집줄이기' 탄력

계열사 유사업무 통합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경영지원분야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작업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그룹 기획실을 중심으로 통합가능 업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1차 통합 대상업무로 재정, 회계, 정보통신기술(IT), 홍보(울산지역)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영지원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계열사별로 각각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최근 그룹 기획실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계열사마다 유사업무를 각각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번에 1차로 통합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통합대상 업무를 검토하면서 현장 밀착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현장밀착성이 낮은 재정, 회계, IT, 홍보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Goliat FPSO

이후 다른 분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계열사별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동 대응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등 전반적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통합작업과 함께 조선 3사의 사보(社報)도 오는 7월호부터 통합 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선 3사를 시작으로 업종 유사성을 고려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하늘기자

삼성SDS, 오라클과 中 IT시장 공략

솔루션 사업 공동 마케팅

삼성SDS가 세계적인 IT기업인 오라클과 손잡고 솔루션 사업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삼성SDS와 오라클은 24일 "글로벌 솔루션 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관한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라클의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을 활용해 삼성SDS의 국내외 성능을 검증 받은 물류 솔루션과 분석 솔루션을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및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최적화해 상호 시너지를 높여 우선 성장성이 높은 중국 IT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했다.

삼성SDS 물류 솔루션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트래킹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최적화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SCM, 물류 계획 수립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 분석 솔루션은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능을 검증 받았으며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성과를 보일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삼성SDS는 빅데이터 분석·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을 집목해 공정 설비에 설치된 모든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시각화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을 오라클 빅데이터 분석 어플라이언스에 최적화 해 다양한 분석 모델과 인메모리 기반의 고성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중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SDS 사업기획실장 임수현 전무는 "물류 솔루션과 분석 솔루션은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가 집적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혜인기자 hasesyih@

SKT, 인천 신기시장에 '야구 역사거리' 조성

SK플래닛과 인천 신기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젊은층 고객 유입을 위해 신기시장 내에 '야구 역사거리'를 조성,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야구 역사거리는 신기시장 공영주차장내 1층 약 28m에 걸쳐 조성돼 있으며 인천 야구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할 수 있도록 인천야구 100년사, 명예의 전당, SK와이번스 존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인천야구 100년사'는 한국 최초의 야구단인 '한용단'을 비롯해 인천 야구 역사를 사진과 함께 연도별로 담아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명예의전당'은 인천을 빛낸 삼미 슈퍼스타즈,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등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을 사진자료와 함께 조명했다.

SK와이번스 존은 SK와이번스 선수들의 핸드 프린팅과 선수들이 사용하던 유니폼, 야구공에 직접 사인한 물품들을 전시했다. /김유진기자

신동빈 "안전 최우선으로 월드타워 완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은 2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4년5개월만에 100층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안전에 역점을 두고 123층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올해 말께 123층 555m에 이르는 롯데월드타워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1년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은 "완공 때까지 모두 4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라며 "완공 이후에는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경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에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형지 "유통·신사업 확대"… 조직개편 단행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는 유통사업 총괄 임원을 선임하고, 신규사업팀 신설과 조직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지는 최근 유통 총괄임원으로 신세계 출신의 한상대 사장을 영입했다. 한 사장은 신세계 외에도 한양유통, 마리오아울렛 등을 거친 유통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앞으로 서울 장안동 바우하우스와 부산 하단동 바우하우스 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형지 측은 "유통업에 종사해왔던 총괄임원이 오면서 바우하우스 사업에 큰 방향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팀은 현재 진행 중인 EFC 인수하고 사업정상화로 이끄는 등 신규사업 추진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형지는 토종 신발 브랜드 에스콰이어로 유명한 EFC를 인수해 잡화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인수 절차는 다음 달께 마무리된다.

임원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형지는 김인규 우성I&C 대표이사 전무를 부사장에, 강수호 CFO 상무를 전무에, 배경일 샤트렌사업본부장 상무보를 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패션그룹형지는 바우 총괄사장이, 샤트렌은 김염호 사장, 형지리테일은 최병완 사장, 우성I&C는 김인규 부사장, 에리트베이직은 홍종순 부회장, 바우하우스는 한상대 사장이 각각 맡아 그룹의 성장을 이끌게 된다. /김수정기자

'17돌' 롯데마트, '품질 혁신' 경영 선포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창립 17주년(4월 1일)을 맞아 신선하고 안전한 계절 먹거리를 공급하는 '품질 혁신' 경영을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뜻한 봄철 나들이 먹거리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한 신선식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수 농가와의 산지 직거래와 계약 재배를 확대해 사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롯데마트가 생산 과정에 적극 관여한 상품 품질의 상품들을 선보인다.

품질 차별화를 위한 노력에도 나서 과일의 당도 선별 작업을 한층 강화한다.

남창희 롯데마트 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선식품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지킴이 제일모직 덕수궁 찾아 재능기부

제일모직 리조트 건설부문은 덕수궁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김봉영 사장과 허진욱 전무(건설사업부장), 정진벽 전무(안사지원팀장)를 비롯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제일모직은 회사의 조경업과 건설업의 노하우를 살려 덕수궁 내 시설들의 조경관리와 시설보수를 진행했다.

고종의 서재로 사용된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 주변에 매년 등 관중, 죽제비고사리 원추리 구절초 등 우리 나라 고유의 꽃들을 식재해 동서양의 조화를 구현했다.

아디다스 아웃도어 성공할까?

이랜드리테일 통해 매장 확대·제품군 강화… 시장 안착까지는 시간 걸릴 듯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올해 아웃도어 사업을 강화한다. 아웃도어 업계가 스포츠 영역에 뛰어들면서 업계 간 경계가 허물어지자 스포츠 업계도 기존 사업으로는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디다스 아웃도어 매장 강서점

아디다스코리아(대표 장 마셀 그라니에·사진)는 이달 25일 NC아울렛 먹스코점에 이어 다음 달 NC백화점 평촌점에 아웃도어 단독 매장을 연다. 이랜드리테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C백화점 등에 10개의 단독 매장을 상반기 내로 오픈할 계획이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조만간 글로벌 담당자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시장의 아웃도어 전략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아디다스 아웃도어는 지난달 NC백화점 강서점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이달 송파점, 안산고잔점, 계운대점에 잇따라 입점했다. 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과 동아백화점 쇼핑점에도 입점을 완료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11년부터 일부 아디다스 매장에서 숍인숍 형태로 아웃도어 의류를 선보였으나 올해부터 단독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자 아디다스 글로벌 본사에서도 이를 눈여겨 본 것이다.

단독 매장을 내면서 제품군도 확대됐다. 특히 베이스 제품군은 기존 러닝 카테고리에 속해 있던 트레일 러닝을 아웃도어로 편입시키고 바이크 활동에서 입을 수 있는 의류도 테렉스 라인에 추가했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그동안 스포츠 의류에 집중해왔지만 아웃도어가 성장세인 국내 시장에 맞춰 글로벌 본사에서 대응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등산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아웃도어와는 달리 스포츠로 접근해 젊은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포츠 업계의 아웃도어 진출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후발 주자가 참여하기에는 성장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스포츠 업체중 별도 아웃도어 브랜드를 내는 경우는 드물고 아웃도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스포츠 업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라 아웃도어도 매출 확대보다는 효율화 쪽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아웃도어는 기존 매장 수를 유지하면서 원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에서 러닝화와 같이 스포츠 아이템을 출시하면서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졌던 것이 올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웃도어 시장이 예전만큼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후발 주자들이 시장에서 자리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유통가, TV 예능 프로 연계 마케팅 활발

'삼시세끼'·'오늘 뭐먹지' 활용 광고 잇따라 선봬

유통업계와 TV 예능 프로그램과의 협업이 잇따르고 있다. 단기간 상품 판매, 이벤트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을 활용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자금자족 헬스&뷰티 라이프 '삼시세끼 올리브영관' 행사를 진행한다. 올리브영이 지향하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쇼핑의 즐거움을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이 전하는 웰빙라이프 이미지와 연계해 한층 더 재미있게 풀어냈다.

오픈마켓 G마켓은 삼시세끼-어촌편에서 출연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애완견 산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 중이다. 깜찍한 외모와 손호준과의 케미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산체를 캐릭터화 한 파우치, 클리어파일, 접착메모지 엽서 6종세트, 데코스티커 6종세트 등 총 5종 제품을 단독 판매하고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글라스락은 올리브TV와 인기 프로그램인 '오늘뭐먹지'에 출연한 신동엽을 전속 모델로 발탁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꿋디지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김보라기자 bora@

맥도날드 "알바노조 주장 사실 무근"

불법 매장점거 직원·고객 위협 시위 중단 촉구

한국맥도날드(대표 조 엘린저)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예고한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직원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며 "근거없는 공격과 직원, 고객을 위협하는 일련의 불법 시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해당 단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한 전직 크루(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지방노동위원회도 회사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며 "해당 크루는 재직 기간 동안 잦은 스케줄 변경,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었으므로 계약 갱신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법에 위반되는 노동 법위 발생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며 "매장 근무 시간은 크루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며 소위 '꺾기'(강제로 조퇴를 시키거나 늦게 출근하도록 해 시급을 깎는 행위)는 엄중히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크루의 93% 이상이 7000원에서 9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간제 크루도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 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받는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아는 **청정원**에서
당신이 원하는 **청정원**으로

푸드를 아는 사람들

청정원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일터' 현대백화점

⑤ 현대백화점 그룹

HYUNDAI

현대백화점그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라는 그룹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임직원들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행복 수준이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배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현대백화점 직원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유통업계 첫 'PC 오프제' 도입, 無 야근 실천… 안식월·안식주 도입

◆ 'PC오프제'로 무(無) 야근 … 안식월·안식주 휴가제

현대백화점그룹은 무(無) 야근 실천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저녁이 있는 삶' 구현이 핵심 취지다. 일은 물론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월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최초로 퇴근시간 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PC-OFF) 시스템'을 도입했다. PC 오프 시스템은 퇴근 시간 30분 후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방식으로 본사의 경우 오후 7시, 각 점포는 오후 8시30분에 꺼지며 다음날 오전 6시에 켜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PC 오프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정지선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촉발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C 오프제는 현재 현대백화점에 근무 중인 총 2000여 명의 개인 PC가 대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에도 PC 오프 시스템을 연이어 도입했다.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 '안식월 휴가제'도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개월~1년 동안 쉴 수 있는 안식년 프로그램을 부장급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 달 단위의 안식월을 차장까지 직급을 확대해 운영한다. 3~4년에 한번씩 한달 간 연차 휴가가 있다.

안식월 대상자가 아닌 임직원 대상으로는 '안식주'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평소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여름과 겨울 정기휴가 외에 연 5일 이상 휴가를 쓰는 제도다. 비수기 휴가 활성화로 여행 경비 절감 및 리프레시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도	세부 내용
PC오프제	오후 7시, 점포는 오후 8시 30분에 자동으로 PC 전원이 꺼짐
안식월·안식주 휴가제	월·주 단위 휴가 시행
여직원 홈 안심	여직원 집 보안 서비스 제공
자동육아휴직제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1년간 자동 휴직
배우자 출산 30일(유급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30일까지 휴가
스트레스 검사	업계 최초 임직원 대상 스트레스 검사
해외 휴양소 지원	여름휴가 중 콘도 휴양지 호텔 숙박비 3분의2 회사 지원
스쿨박스 증정	임직원의 초등학교 입학자녀 대상 학용품 선물

이밖에 스트레스 검사도 매년 시행되는 임직원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진다. 진단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유도 지원한다. 또 여름휴가 중 홍콩·싱가포르·필리핀 세부·괌 등의 해외 휴양지 호텔 숙박비도 3분의 2를 회사가 지원하는 해외 휴양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직원 가족까지 만족시킨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계열사별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직원 복지 확대에서 더 나아가 그 가족까지 배려하고 있다. 이같은 현대백화점그룹의 가족친화경영은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 女직원 복지 확대 … 자동육아휴직제·여직원 홈 안심제도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부터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1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제도는 아이를 낳은 여직원이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휴직을 원하지 않는 여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6세를 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남자 직원들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3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민간·공공 부문 중 현대백화점이 최초로 운영했다.

여직원들의 퇴근 후의 안전도 챙겨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여직원 홈 안심제도'를 지난해 3월 도입했다.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직원 집에 열선감지기·자석감지기 등 보안장치를 설치해주고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도 지원한다. 강제로 출입문 혹은 창문을 열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즉각 보안업체가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집을 비운 경우에도 침입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여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 준다. 또 회식 등 회사 내 특별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져 여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승차시각과 위치, 택시의 차량 정보 등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퇴근 후 편안하게 쉬고 재충전해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회사 일도 잘할 수 있다"면서 "여직원과 떨어져 사는 가족의 걱정과 불안감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족도 직원이다' … 초등입학·수능자녀 선물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3월 처음으로 직원 자녀 중에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선물인 스쿨박스(사진)를 증정했다. 스쿨박스는 23종의 학용품과 CEO의 입학 축하 편지로 구성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스 캐릭터로 상자를 포장했다. 학용품의 구성품은 초등학교 교사 20명에게 필수 품목을 설문해 청소도구·미술 앨지마·악기세트 등과 같은 초등학생의 필수품으로 이뤄졌다.

입학 선물은 올해 대상자 97명에게 각 사업소 임원이 직접 전달했고 매년 80~100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또 올해 처음으로 출산을 한달 앞둔 임신 직원에게 택시비를 지원했다. 출·퇴근 이외에 병원 검진 등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에게는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떡·보온병·담요 등으로 구성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나길용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팀장은 "직원과 가족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직원과 그 가족까지도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강강술래 해외진출 1호점

중국 천진 시대오성점 그랜드 오픈

'강강술래' 대륙 입맛 공략

中 텐진 시대오성점 오픈 – 中 호텔 내 매장 확대 "중 대표 한식당 자리매김"

숯불구이한식전문점 강강술래가 중국에 1호점을 열며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강강술래 운영사인 전한(대표 최종만)은 지난 23일 중국 텐진시에 강강술래 중국 가맹점 1호점인 시대오성점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한의 해외 시장 진출은 창립 27년만이다. 강강술래는 텐진점에 이어 중국내 호텔 체인과 연계해 호텔 내 한식당 형태로 중국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강술래 텐진 시대오성점은 면적 약 450평(1487.60㎡)에 260석 규모의 4층 단독 건물로 인근 1만 가구 이상의 고급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상류층 주민과 외국 주재원, 화이트칼러 계층이 주 타깃 고객이다.

메뉴는 소고기와 양념갈비 등 기본 라인은 유지하되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본사에서 조리장과 조리파트, 서비스파트 직원을 파견하는 등 철저하게 현지화와 고급화에 초점을 뒀다.

테이블은 전부 4인과 6인석으로 갖췄고 테이블 옆에서 외부공간에서 고기를 구워내 접시에 담아 서비스하여 편안하고 쾌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전체를 룸 파티션으로 구분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강강술래 시대오성점은 별써 각종 비즈니스와 주부모임 장소는 물론 텐진시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스릴러영화 '불속지려'을 촬영중인 배우 한채영과 홍콩 유명배우 여명을 비롯한 스타들이 이곳에서 회식을 갖는 사진이 웨이보를 통해 공개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종만 전한 대표이사는 "한국적이면서 세련된 분위기와 뛰어난 맛, 친절하고 신속한 한국식 서비스가 현지 중국인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텐진은 대표하는 전통 한식 음식점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한은 서울, 수도권에 5개의 대형 직영매장도 새로 열 계획이다. 이달 초 고양시에 1만2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외식 테마파크에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갈비구이 전문관도 열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 9개의 대형 직영매장을 운영중으로 연간 300만명이 찾고 있는 외식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863@metroseoul.co.kr

서울역, 공항철도·지하철 환승 편해진다

1·4호선 연결통로 28일 개통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과 지하철 1·4호선 지하1층을 잇는 지하 환승통로가 28일 개통된다. 이에따라 서울역에서 공항철도와 지하철 1·4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됐다.

환승통로가 없는 현재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공항철도 지하 3층 일반열차 게이트에서 집표하고 나간뒤 지상 2층까지 올라가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 1호선, 4호선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환승통로 개통시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에서 곧바로 환승통로를 통해 지하 1층에 위치한 1호선·4호선 대합실로 곧장 갈수 있다.

서울역 환승통로는 길이 304m 폭 7.4m로 승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무빙워크 4대, 엘리베이터 3대가 설치된다.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은 15분→5분으로, 지하철 1호선은 12분→7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또, 그동안 환승단절 되던 1회용 교통카드도 환승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정기권도 사용할 수 있다.

환승통로 개통에 따라 인국 외국인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해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서울 도심 관광명소로의 이동도 편리해져 외국인들의 지하철 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승통로가 개통되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환승시 할인은 개통되는 환승통로를 이용할때만 적용된다. 이전처럼 선후불 교통카드로 게이트에 집표한뒤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 1호선·4호선을 이용할 경우(반대의 경우도 포함) 환승 자체가 되지않아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서울역 환승통로 /한국농촌철도공사 제공

롯데칠성, 제주 감귤농가와 상생주스 출시

'제주사랑 감귤사랑'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제주감귤재배농가와 손잡고 상생주스 '제주사랑 감귤사랑'을 선보였다.

제주사랑 감귤사랑은 제주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감귤을 농축해 만든 제품으로 감귤과즙이 50% 들어있어 심다가 벗은 새콤달콤한 제주감귤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 사랑 받는 제주의 이미지를 지역 특산품인 제주감귤에 대한 사랑의 이미지로 연결, 하나시키기 위해 제품명을 '제주사랑 감귤사랑'으로 정했다. 패키지 라벨도 신선한 감귤과 한라산·돌하르방 이미지를 넣어 청정한 제주 자연의 느낌과 제주 지역과의 상생 이미지를 더했다.

180㎖캔, 500㎖·1.5ℓ·1.8ℓ페트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각 1000원, 1800원, 2300원, 3000원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존 팔라 제주감귤 제품이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가치창출의 의미가 더해져 대기업, 제주감귤재배농가의 상생 합작품 '제주사랑 감귤사랑'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판매 채널 확대 및 마케팅 강화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제주감귤과 연계된 홍보도 강화해 제주감귤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58

주웅 이화의료원 교수, 美 하버드생 대상 특강

한국 산부인과 선진 의료 소개 – 국제 보건 의료 관심 당부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 산부인과 주웅 교수가 학술문화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하버드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간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Ewha-HCAP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됐다.

'한국의 최첨단 의료 기술(State of the Art Healthcare Technology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주웅 교수는 유럽권 선진국 수준의 우리나라 기대 수명과 세계 최고의 자궁암 치료 성적을 제시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매우 낮은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국내 의사들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첨단 의료 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강조했다.

주웅 교수는 이울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터넷 기반 자궁암 선별검사법인 자궁경부 촬영검사(Cervicography)를 소개하고 "이러한 원격진단 기기가 의료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버드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글로벌 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강 후 참가자들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암 환자 전용 병동인 레이디병동 등 여성암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주웅 교수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종양학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나라 산부인과 암 의사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KT,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KT는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첫 행사로 프랑스의 대표 통신사 오렌지의 연구개발센터인 오렌지 랩 코리아 제휴 단이원에서 주관하는 '오렌지랩 아시아 in 서울'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오렌지랩 아시아 프로그램은 해당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으로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KT와 오렌지가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첫번째 사례다.

이번 행사에는 시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영상음성 분야에서 한국·일본·대만에서 각각 선발된 1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혁신센터 내에 부스를 차리고 약 100여명의 벤처투자자와 글로벌기업 관계자에게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또 KT가 국내 강소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K Champ 벤처 창업 공모전'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중 에니웨이브, 브이터치, GT 쇼핑 등 4개사가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쳤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가 전담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달 말 8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GD 직원 위한 여가 안내 간행물 발간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담긴 간행물을 발행했다.

LG디스플레이는 임직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결혼 및 여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간행물 '조이풀 워크플레이스(Joyful Workplace)'를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미혼 임직원을 위한 작은 결혼식 관련 장소와 비용,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방법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돼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상반기 중으로 즐거운직장팀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간행물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즐거운직장팀을 신설하고, 임직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family-friendly) ▲심신의 건강(Wellness) ▲조직활성화(Joyful Energy) 등 세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정윤모기자

LGU+, '개선점 도출' 고객체험단 확대

LG유플러스는 연간 800여명 수준으로 운영하던 고객체험단을 올해 2500명 수준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체험단은 체험 기간 중 경쟁 서비스를 선정, 고객의 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면밀한 비교체험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용 상황과 경험에 대해 사내 서비스 담당자와 1대 1로 인터뷰를 진행해 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서면 인터뷰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던 수준에서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뛰어나가 고객의 생생한 체험과 반응을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역할이 강화됐다. /이재영기자

차별화 시대… 앱 갖춘 IT기기 뜬다

프린터·스마트펜 등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최근 제품과 연동이 가능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갖춘 IT기기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제품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제품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기기 자체의 성능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TV를 볼 때 리모컨을 사용하듯 전용 앱을 통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켤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면 음악 마니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로지텍코리아가 출시한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 'UE붐'은 휴대가 간편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로 360도 전 방향의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한다. 배터리 완충 시 최대 1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특수 소재로 제작된 어쿠스틱 스킨은 생활방수는 물론 오염에도 강하다.

최근 선보인 새 UE붐 전용 앱은 PC와 연결해야지만 업데이트가 가능했던 기존의 UE붐 앱과 달리 무선 환경에서 간편하게 제품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UE 붐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원격제어 기능도 추가됐다.

또 2개의 UE 붐을 연결해 스테레오 투 스테레오 모드와 좌우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해 더욱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음악 알람 기능, 개인화 이퀄라이저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아름다운 추억을 곧바로 프린트해 간직하고 싶

네오 스마트펜 N2

은 셀피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소형 프린터도 전용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소형 프린터 포켓포토 /LG전자 제공

LG전자의 소형 프린터 포켓포토는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기능인 사진 편집 기능을 강화한 전용 앱을 공개했다. 편집 기능을 선택하면 밝기 제도와 사진 방향 등 기본적인 편집은 물론 또렷한 선명하게 빛 바랜 등 30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사진 하단에는 직접 메시지와 QR코드를 넣을 수 있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사진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출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진이 인화된다.

아날로그 필기의 익숙함과 디지털화된 문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노트에 필기하는 내용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주는 스마트펜을 사용해보자.

네오 스마트펜 N2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해 필기 내용을 컴퓨터에 문서로 따로 정리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모바일 메신저로 곧바로 공유 할 수 있어 회의가 잦은 직장인에게 유용하다.

사용자는 필기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태그 기능으로 검색하거나 기기에 내장된 사전을 통해 검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필기했던 장소와 시간, 공유한 내용, 환경을 기록하는 등 필기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G전자, 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 국제인증

LG전자가 전자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국내 전 사업장과 유럽, 미주 데이터센터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국제인증서(BS10012)를 받았다.

BS10012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관리체계, 법규 준수 능력, 의식 수준, 상시 내부감사 시스템 등을 따져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는 인증이다.

LG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 점검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한국, 유럽, 미주 외에 2016년까지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인증지역

LG전자가 24일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영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 전 사업장, 유럽, 미주 데이터센터 등 총 3곳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국제인증서를 받았다.

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은 "LG전자 모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 /정윤모기자

연기대상? 욕심 No!
배우 존재감 확인 만족

'킬미 힐미'로 극찬 받은 배우

지성

종영 후유증에 정신 혼미
'틴트 완판남' 어이 없었죠
이제는 좋은 아빠 될 준비

배우 지성(38)이 MBC 드라마 '킬미 힐미' 종영 후유증을 걱정했다. 그는 "방송이 끝나고 가장 걱정되는 건 나"라며 "힘들어질까봐 겁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전에 우울증을 앓아봤어요. 한 번 시달려봐서 그 고통을 알죠. 그런데 이젠 우울증이고 뭐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웃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부분이 있죠. 제 인격을 위주로 보여주니까 다른 배우들의 분량이 편집되기도 했거든요. 동료, 선배들이 있어서 제가 놀 수 있던 건데 아쉽죠."

'킬미 힐미'에서 어린 시절 학대로 7개 인격을 지니게 된 차도현 역을 맡아 '올해의 연기대상'이란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지성은 "생각해 본 적 없다.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지 배우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한 것에 방점을 뒀다.

7개 인격이 모두 특색 있었던 비결은 지성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촬영 강행군이 이어지 성대부종을 앓은 채 연기했다.

"괴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정에 몰입하다 보니까 생목을 써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죠. 병원에 가서 긴급처치를 받았고 목소리가 돌아오기까지 하루가 걸렸어요. 목요일 방송분을 저 때문에 수요일 오전부터 몰아 찍었어요. 며칠 만에 쉬어지더라고요. 결방될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캐릭터마다 목소리가 달라야 했는데 목소리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아차 싶었죠."

결혼 후 역할 선택에 부담을 느낄 법하지만 "오히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흔이라는 나이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킬미 힐미'를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캐릭터마다 진심을 담을 지만 고민했어요. 마흔 살 배우에게 공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내려놓고 캐릭터에 빙의해서 연기했어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고등학교만 여수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전라도 사투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페리박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릴 때 듣고 봤던 기억들이 그냥 표현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죠. 다 소중한 인격들이에요. 제가 언제 여자 교복을 입고,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려보겠습니까?(웃음)"

7개 인격 중 요나는 여성 시청자의 워너비였다. 그녀가 바르는 틴트가 완판된 것이다. 정작 아내 이보영은 지성이 요나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울먹였다. "(아내가) 홍대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뛰는 장면을 보러 왔어요. 우리 가장이 여자 교복입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해요. 기분 좋더라고요. 틴트가 완판됐다는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죠.(웃음) 틴트 회사에서 준 선물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6월 말 아빠가 된다. 아동 학대를 다룬 '킬미 힐미'에 출연한 배우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아빠가 빨리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요. 아기가 커 가는 게 눈으로 보여서 신기하죠. 예정일되면 눈물을 쏟을 거 같아요. 요즘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구타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하염없이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부터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공포 영화 '검은손' 데뷔

신인 배우 박그린이 공포영화 '검은손'으로 데뷔한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뉘언니 유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여동생 유미 역을 맡았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존재감 있는 역할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영화는 다음달 16일 개봉 예정이다.

강력계 형사 변신

배우 김범이 tvN 새 월화극 '신분을 숨겨라'(가제)에서 강력계 형사 차건우로 변신한다. 해군특수전여단 SEAL에 복무한 후 경찰특공대 근무 이력을 가진 용신서 강력계 형사다. 경찰대학교에 수석 입학했지만 2년 후 자퇴한 인물이기도 하다. '식샤를 합시다2' 후속 작으로 오는 6월 첫 방송된다.

'풍문' 영풍 연기 비결

배우 고아성이 SBS 월화극 '풍문으로 들었소' 대본 인증샷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고아성은 심각해 보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본을 보고 있다. 책상 위 연필과 노트가 눈에 띈다. 그는 서봄으로 분해 종잡을 수 없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며 호평받고 있다.

새 둥지 틀고 앨범 발매

모던락밴드 '에쉬그레이' 전 보컬 이한권이 뉴이라무직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새 둥지를 틀고 오는 28일 첫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담긴 감성 발라드 장르다. 이한권은 에쉬그레이 탈퇴 후 크로스오버밴드 보이디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오랜만의 여성 영화 반가워요"

영화 '차이나타운' 제작발표

김혜수·김고은, 강렬한 캐릭터 '변신'

남자 배우 일색인 충무로에서 오랜만에 여배우들의 활약을 내세운 영화가 나왔다. 김혜수, 김고은이 만난 영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이다.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린 영화다. 한준희 감독과 출연 배우 김혜수, 김고은, 엄태구, 박보검, 고경표 등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혜수는 '차이나타운'에 대해 "여성이 주체가 되는 영화를 찾기 어려웠다. 남자 캐릭터를 보조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시나리오가 반가웠다"고 말했다.

김혜수가 맡은 인물은 극중 차이나타운의 절대 권력자이자 '엄마'로 불리는 조직 보스다. 흰 머리와 뱃살 등 외모적인 변화를 통해 기존에 보여준 여성미를 벗어던진 파격적인 캐릭터다. 그는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흥미도 있었지만 출연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며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김고은은 어릴 적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버려져 엄마 밑에서 자라난 일영을 연기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여성영화라 감동했다. 게다가 함께 하는 배우가 김혜수 선배라는 이야기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말했다.

전작 '몬스터'와 촬영을 마친 '협녀-칼의 기억'에 이어 또 한 번 강렬한 액션 연기를 했다. 김고은은 "새

24일 오전 11시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차이나타운'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주연 배우 김혜수(왼쪽)·김고은 /뉴시스

작품 연속 액션을 하게 돼 액션 팀 분들과 같이 있었다. 이번에는 컨펌(확인)을 받는 정도였다"고 액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연출을 맡은 한준희 감독은 "김혜수와 김고은을 캐스팅한 것은 당대를 풍미하는 여배우, 그리고 곧 한 시대를 풍미할 여배우를 동시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이나타운'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o@metroseoul.co.kr

태진아 "억대 원정 도박? 절대 아냐"

"미국 가족 여행 중 재미 삼아 들렀을 뿐…억울해"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사진)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진아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불 대극장 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USA가 보도한 억대 바카라 도박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한가수협회 회장이자 오랜 시간 가요계에 몸담은 선배로서 연예인이란 것을 약점 삼아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가족들과 미국 여행 중 (카지노에) 방문해 재미 삼아 했다"며 "카지노 방문 횟수와 장소에 대해 방송을 통해 이미 밝혔으나 정정 기사가 나지 않았다. 억울하지만 며칠을 기다렸다. 그러나 2탄, 3탄을 터뜨리겠다는 등 의혹만 계속 증폭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어린 시절 서울에 올라와 허리 작업을 거치며 생활해 돈의 소중함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가족 여행 중 재미삼아 카지노를 한 것일 뿐 억대 도박은 절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들 이루 역시 억대 도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태진아는 시사저널 USA사장에게 정정기사를 내고 잘못을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전했으나 시사저널 USA 측이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시사저널 US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게임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태진아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매체가 관련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지민기자 aroilom@

이문세, 새 앨범서 규현과 듀엣

15집 '뉴디렉션' 내달 7일 발표
16년만에 다른 가수와 콜라보

가수 이문세가 후배 가수 규현과 호흡을 맞춘다.

이문세는 다음달 7일 발표 예정인 정규 15집 '뉴 디렉션(New Direction)'의 수록곡 '그녀가 온다'를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함께 부른다고 소속사 케이문에프엔디(KMOONf&d)가 24일 밝혔다.

이문세가 다른 가수와 듀엣을 이룬 것은 약 16년만이다. 그는 1978년 발표한 11집 '썸타임즈'의 수록곡 '할수 있어'서 조규찬과, 1999년 12집 '사랑과 나무 그리고 쉼'의 타이틀곡 '슬픈 사랑의 노래'에선 이소라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문세가 13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에서 후배 가수와 호흡을 맞추게 된 배경엔 '광화문'이 있었다.

규현은 지난해 11월 첫 솔로 앨범 '광화문에서'를 발표했을 당시 이문세의 1988년 발표곡 '광화문연가'와 묘한 기시감을 자아내 화제를 모았다. 광화문을 소재로 한 노래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호흡에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문세는 다음달 15일부터 전국투어 극장공연 '2015 씨어터 이문세'를 진행한다.

/김지민기자

'브아솔'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 2탄

나얼 바통 받아 영준 '니 생각뿐' 발표

보컬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정엽·나얼·영준·성훈) 영준이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

영준은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릴레이 싱글 프로젝트 두 번째 곡 '니 생각뿐'을 오는 27일 정오에 발매한다고 소속사 산타뮤직이 24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오전 '니 생각뿐'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니 생각뿐'은 영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뮤직비디오엔 배우 김대명이 출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네 멤버가 솔로곡을 차례로 발매하는 것으로 앞서 나얼이 '같은 시간 속의 너'를 발표한 바 있다.

/김지민기자 kmak.m@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젊음에 희망을 / 지역에 활기를 / 행복주택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을 위해

첫 걸음을 나서는 당신을

행복주택이

응원하겠습니다

집값 걱정에서 벗어나

편리한 교통과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곳,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행복주택에서 시작하세요.

제12회 LH 대학생 광고공모전 금상 수상작 – 이창빈 외 (명지대학교)

최지우·이서진 짐꾼 커플 '쩐의 전쟁'

tvN '꽃보다 할배-그리스 편' 27일 첫방

배우 이서진 최지우가 돈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두 사람은 tvN 배낭여행 프로젝트 제4탄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 짐꾼 커플로 출연한다. 최지우가 삼시세끼 - 정선 편' 게스트로 등장한 이후 처음 떠나는 여행이다.

24일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최지우는 "생활비를 안 준다"며 이서진의 구두쇠적인 면을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여행비에 내 몫도 있는데 처음부터 나보고 과소비를 한다고 구박했다"며 "서러웠다. 방송 보고 내가 정말 과소비를 하는 지 판단해 달라. 정말 억울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이서진은 "배낭 여행이라서 돈이 확뜻한데 최지우는 배낭 여행임을 잊는 거 같다. 감성적으로 즐기더라"며 "또 최지우는 여자니까 독방을 쓴다. 남자 다섯 명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나는 총무로서 어떻게든 여행을 마쳐야 하니까 돈 문제에 부딪히면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짐꾼이 두 명으로 늘어난 뒤 대해서 이서진은 "최지우는 나에겐 없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며 "요리와 상가운 성격이다. 나는 분위기를 띄우지 못하는 성격인데 최지우가 그 부분을 도맡아 해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tvN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 주인공 백일섭 이순재 신구 박근형(왼쪽부터) / CJ E&M 제공

최지우와 이서진

'꽃보다 할배' 네 번째 이야기는 나영석 박희연 PD가 공동 연출을 맡았다. 특히 나영석 PD는 '꽃보다' 시리즈와 '삼시세끼' 시리즈를 모두 성공시키며 스타 PD로 입지를 굳혔다.

나영석 PD는 "여행과 시골에서 밥 먹는 거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시는 것"이라고 나 PD표 예능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꽃할배'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짐꾼 이서진 최지우가 함께 하는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은 27일 오후 9시45분 첫 방송된다.

/한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짝 잃은 외기러기' 특집

최정원, 김재덕, 류재현, 쇼리 등 여러가지 이유로 멤버 없이 혼자 활동 중인 네사람이 출연해 '짝 잃은 외기러기' 특집이 방송된다.

특히 7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최정원은 UN 불화설에 대한 MC들의 질문공세에 솔직한 답변으로 응수해 MC들을 당황하게 한다. 김재덕 류재현 쇼리도 같은 멤버였던 장수원 윤민수 상추에 대해 거침없는 폭로전을 펼친다.

◆ SBS '영재발굴단' 오후 8시55분

지난 설날특집 파일럿방송 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6세 때 이미 탄 권의 책을 독파한 9세 쌍둥이 자매를 시작으로 파일럿 방송 당시 주목을 받았던 박상민의 둘째 딸 박소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컬투 김태균과 정찬우가 MC를 맡았다.

◆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오후 10시

김현정(도지원)과 중년의 설렌 로맨스를 예고했던 이문학(손창민)이 강순옥(김혜자)에게 처음으로 인사한다. 나현애(서이숙)는 강순옥의 집 근처에서 옛사랑 한충길(최정우)을 만나 충격에 빠진다. 이두오(송재림)와 정마리(이하나)는 마음을 확인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11시

떡볶이 마니아들이 '수요미식회'에 떴다. 떡볶이를 안 먹으면 손이 떨린다는 이윤지의 남다른 떡볶이 사랑과 야심한 밤 떡볶이를 즐긴다는 혜리남의 거침없는 떡볶이 평가부터 전국 떡볶이 제보까지 떡볶이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된다.

/정리=이유리기자 yu@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9시 재고한 3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5 2TV 저녁 생생정보	11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illegible] 놀이터 25 [illegible] Pop! Pop 40 [illegible] 45 도전 [illegible]
19시	00 KBS 뉴스 7 30 청춘의 탄생	00 달콤한 비밀 (96회)	15 불굴의 차여사 (8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71회)	00 서제다를 [illegible] 20 스쿨랜드 30 초등 영어 Eng Family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8회)	30 생생 정보 [illegible] 55 [illegible]	55 천국의 [illegible] (10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00 지식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30 [illegible]		00 [illegible] 30 다큐 [illegible] 4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illegible]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9회)	00 앵그리맘 (3회)	00 하이드 지킬, 나 (10회)	30 EBS [illegible] 특강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illegible] 콘서트	1 두유앤떤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illegible] TV연예	20 [illegible] 세계[illegible]
24시	50 한국 일본 수교 25주년 기념 [illegible]	30 스포츠 [illegible] 45 [illegible] (4회)	30 MBC 뉴스 24	05 나이트라인	00 EBS [illegible] 2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10 냉장고를 부탁해 (19회)	40 월드뮤직 (55회)	30 한식대첩 (1회)	10 TV 동물농장 (403회)	19:00 ◆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오리온스 vs 동부 SPOTV MBC스포츠+
19시	40 우결세권 521 (165회) 55 JTBC 뉴스룸	40 고현국의 [illegible] (8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삼총사 고[illegible] (12회)	00 [illegible] (47회) 30 [illegible] (24회)	00 [illegible] 1부	
21시	40 [illegible] (34회)	40 [illegible] (14회)	50 [illegible] 50 노 오븐 [illegible] 2 (7회)	00 [illegible]	
22시			00 [illegible] 2015 (8회)	00 [illegible] (13회)	
23시	00 크라임 씬 스페셜 (3회)	00 수요미식회 (18회)	00 2015 [illegible] (13회)	00 [illegible]	
24시	40 크라임 씬 스페셜 (4회)	20 삼시세끼 어촌편 (3회)	50 2015 [illegible] (5회)	00 [illegible]	

박태환 '리우' 갈 수 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 자기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리스 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했다. 이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한 박태환은 6개의 메달 기록이 삭제돼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 시작돼 2016년 3월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박태환의 징계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AFP통신은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이 "박태환이 2016년 리우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나서려면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 징계로 무효 소지가 있어 폐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추신수, 日에이스 이와쿠마 상대 3안타

마이너서 타격감 조율 "개막전 출전 이상무"

왼쪽 삼두근 통증으로 잠시 쉬었던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3)가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나서 타격감을 키웠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마이너리그 트리플A 평가전에 5차례 타석에 등장해 5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텍사스는 시애틀에 양해를 구하고 추신수를 1회부터 5회까지 매 이닝 선두타자로 내보냈다. 추신수는 2루타 2개를 포함해 3안타를 쳤다.

비공식 경기로 치른 마이너리그 게임이었지만 상대 투수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5승(9패)을 올린 일본인 에이스 이와쿠마 히사시였다. 추신수는 다섯 번의 타석에서 모두 이와쿠마를 상대했고, 안타 3개를 만들었다.

경기 뒤 추신수는 "한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다"며 "첫 타석에서는 상대 투수 공에 부담을 느꼈지만, 점점 좋아졌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 16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 이후 자체 평가전과 마이너리그 경기만 소화했다.

이에 대해 추신수는 "시범경기 출전 경기수에 신경 쓰지 않는다. 4월 7일 개막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증도 심하지 않아 곧 시범경기에 복귀해 경기 감각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지동원 "경쟁자 이정협은 먼 친척"

슈틸리케호 소집 첫 훈련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식어가던 축구 열기를 되살린 대표 선수들이 3월 평가전을 앞두고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집결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 낮 12시 30분 파주 NFC에 집결해 소집 훈련에 돌입했다.

대표팀의 '에이스'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아시안컵 이후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슈틸리케호에 새롭게 합류한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과 김보경(위건)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지동원은 "오랜만에 대표팀에 와서 감사하고 설렌다. 좋은 선수들과 운동하게 돼 즐겁고, 팬들 앞에 설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상주)과 포지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친하지는 않지만 이정협과 먼 친척이라는 얘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었다"고 소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역시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하고자 장시간 비행을 하니 느낌도 다르다"며 "외부에서 대표팀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대표팀은 이날 오후 첫 훈련을 소화한 뒤 25일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1차례 공개 훈련을 포함, 담금질을 한 뒤 27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한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우즈베키스탄에 9승 2무 1패로 크게 앞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한국은 56위, 우즈베키스탄은 72위다.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하는 오세아니아 최강 뉴질랜드 역시 FIFA 랭킹이 136위로 한국과 실력차가 크다. /김민준기자

매팅리 "류현진 치료 충분한 시간 줄 것"

주치의 만나 정밀검진

왼 어깨 통증을 느낀 류현진(28·LA 다저스)이 24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와 만나 검사를 받았다.

MLB닷컴은 24일 "매팅리(사진) 감독이 류현진의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류현진의 마운드 복귀가 늦어지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의 단기 결장에 대비한 대략적인 방법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다저스는 일정상 4월 14일이나 15일에 5선발이 필요하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4월 24일까지는 4명의 선발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3선발로 내정한 류현진이 빠져도 기존 5선발 로테이션은 흔들지 않고 4월 중순까지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매팅리 감독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조 윌랜드, 카를로스 프리아스, 마이크 볼싱어, 잭 리를 메이저리그로 올려 선발로 내보내거나 불펜 데이비드 허프, 채드 고딘을 임시 선발로 기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예고하며 "류현진이 재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류현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왼쪽), 지동원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되고 있다. /뉴시스

'스펙 NO' 공기업 NCS로 채용

130곳 직무능력 중심으로 올해 3000명 뽑아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3000명 정도가 국가가 만든 표준에 기반한 직무중심 면접을 거쳐 채용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가졌다.

채용 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취업준비생의 과도한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도 해당 직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정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이다.

조원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대학 교육을 마친 입사 지원자들을 실무에 바로 투입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훈련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NCS에 기반한 채용 모델을 이미 도입해 상반기부터 서류와 면접 전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NCS에 기반한 서류·면접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1만7000명 가운데 NCS에 기반한 서류·면접 전형으로 채용될 인원은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직무능력중심의 서류전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력과 업무역량이, 면접전형에서는 직무능력과 관련한 경험, 업무수행 시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이 평가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필기전형은 기관별로 전형 개편을 공고한 뒤 1년 뒤 도입하기로 했다.

NCS 채용모델을 도입한 30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올해 도입하는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NCS 기반 필기전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NCS 채용 모델에 대한 취업준비 매뉴얼, 면접과 문제 샘플 등의 자료는 NCS 포털(ncs.go.kr)에 게시해 각 학교와 취업준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4·16 1주기 계획 발표 및 세월호 인양과 특별조사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세월호 즉각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속 나무심기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서 지역 주민과 자연보호 단체 회원 등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느릅나무 등을 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자전거도로 일제정비

행자부, 정비·안전시설 확충… 내달 완료

행정자치부는 봄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전국 자전거도로의 7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용이 불편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이번 정비 기간 폭이 3m 이상인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전봇대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이전하고 파손된 도로 부위를 포장할 계획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간 분리대도 설치한다.

또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된다.

행자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지침을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서울변회, 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입학 기준을 공개하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엄격한 학사관리와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인가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비율을 준수하고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준기자 rsunjun@

고속道 교통사고 5월 요주의… 경찰 집중 단속

경찰은 5월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형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현황에 따르면 1년 중 7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균 21.3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20.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월에 평균 27.7명으로 많아지기 시작해 7월에 32.6명으로 정점을 찍고 9월(28.3명)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7월과 9월에는 휴가철, 5월에는 봄철을 맞이 여행 나들이객 등 단체 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월 평균 2.0건, 2월 2.3건에서 4월 5.7건, 5월 5.3건으로 증가하고 7월(5.3건), 9월(5.0건)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은 단풍놀이가 절정인 10월로 평균 8.0건에 달했다. 가장 적은 12월(1.7건)의 4배나 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봄 행락철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차량 내 음주·가무,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등 대형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김태촌 양아들 횡령 혐의 체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4일 조직폭력배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시주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 검영진에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김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숨진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준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